사업체 매매
오렌지카운티 터스틴·어바인 지역에서
성업중인 중식당(한국식/미국식)
리스기간 5년 이상/ 순이익 2만불
(949) 501-8555 Leah Ivy Chang

부동산 · 경제

BUSINESS • REAL ESTATE

전 당 포
LC3019-0990
가주 최대 규모 / 최고 가격 보장
한인 최초 감정사 / 절대 비밀 보장
각종 명품, 귀금속, 시계
(714) 647-0005 / (714) 647-0007
318 W. 4th St., Santa Ana, CA 92701

파월 "물가 상승 일시적 … 돈 계속 풀 것"

▲ 제롬 파월 Fed 의장. 사진=c-span.org

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(Fed) 의장이 "현재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는 것은 일시적인 요인 때문" 이라고 말했다.

14일 '이데일리' 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14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에 앞서 낸 자료를 통해 "올해 들어 급격한 물가 상승은 경제가 정상화하면 점차 완화할 것" 이라며 이렇게 밝혔다. 최근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.

파월 의장은 최근 물가가 뛴 이유로 ●지난해 물가가 낮았던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점 ●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병목 현상이 발생한 점 ●경제 재개로 서비스 수요가 갑자기 뛰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. 이는 몇 달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이 완화할 것이라고 보는 일시적인 이유이기도 하다.

파월 의장은 "통화정책을 바꾸려면 경제가 더 나아져야 한다." 며 "특히 노동시장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다." 고 강조했다. 그는 그동안 테이퍼링(채권 매입 축소) 같은 정책 변화의 전제조건으로 '실질적인 추가 진전(substantial further progress)' 을 언급해 왔다. 테이퍼링 시기를 두고 '아직은 아니다' 는 신호를 재차 준 것으로 읽힌다.

파월 의장은 "경제 회복을 완료할 때까지 통화정책을 통해 강력한 지원을 할 것" 이라고 했다.

미 6월 물가 5.4% 급등 … 13년 만에 최고

미국의 인플레이션이 6월에도 상승세를 지속하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.

13일 '아시아경제' 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이날 6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가 전년 동월 대비 5.4% 상승했다고 발표했다.

이는 2008년 8월 이후 13년 만의 최대폭 상승이자 전문가 예상치 5.0%를 0.4%포인트나 웃돈 수치다.

6월 CPI는 전월 대비로도 0.9% 상승해 역시 시장 전망치(0.5%)를 크게 웃돌았다.

유류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동월 대비 4.5%나 상승해 시장 예상치 4%를 크게 초과했다. 근원 CPI 상승률은 1991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.

블룸버그통신은 6월 CPI 상승률의 30%가 중고찻값 상승 때문이라고 분석했다.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중고찻값 상승과 휘발윳값 급등은 인플레이션 상승의 주된 요인이다.

6월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10.5%나 급등했다. 휘발유도 1년 사이 45.2%나 상승했다. 식품값도 1년 사이 2.4%가 올랐다. 항공요금과 의류값 상승도 물가를 자극했다.

인플레이션 급등은 가계의 소비 여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.

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시간당 평균 소득이 0.3% 늘었지만 CPI 상승 영향으로 실질 평균 소득은 오히려 0.5% 하락했다.

미 대형은행 상반기 점포 250여개 폐쇄

▲ 사진=shuterstock

미국 대형 은행들이 금융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올 상반기 오프라인 점포를 250여개 이상 폐쇄하고 인원도 감축했다.

15일 '연합뉴스' 가 파이낸셜타임스(FT)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따르면 웰스파고, 씨티그룹, JP모건 등이 올 상반기에 문을 닫은 점포 수가 250여개 이상으로, 각 은행 전체 점포의 1~5%에 달했다.

이중 웰스파고는 미국 내 점포 154개를 폐쇄하고 인원도 6% 줄였다. 씨티그룹은 미국, 멕시코,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점포 100여개를 폐쇄했고, JP모건은 점포 40여개의 문을 닫았다.

애널리스트들이 온라인 및 모바일 뱅킹으로 많은 은행 점포와 인력들이 불필요해질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예견해왔지만 코로나19사태가 금융의 디지털화를 촉진했다고 FT는 설명했다. 뱅킹 애플리케이션(앱)으로 큰 금액의 금융거래나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꺼렸을 고객들도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.

일례로 뱅크오브아메리카(BoA)의 경우 올 2분기 계좌 개설과 신규 대출의 44%가 디지털 채널에서 진행됐다.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만 해도 이 비율은 29%에 그쳤다.